

『나를 따르라』에서 『윤리학』까지: 본회퍼에게 있어서 윤리적 사고의 발전에 대한 소고*

강안일 (서울신학대학교)

I. 서론

II. 본회퍼의 윤리적 사고의 발전 성격에 대한 간략한 연구사

III.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의 저술의 간략한 역사적 배경

1. 『나를 따르라』의 역사적 배경
2. 『윤리학』의 역사적 배경

IV.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에 나타난 본회퍼 윤리의 발전에 대한 논리 (Logik)-비교 관점에서.

1.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
2. 그리스도 형상의 이해
3. 유대인 문제의 역할
4. 하나님의 현실성과 세계의 현실성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
5. 특별한 것과 동일한 것(περισσόν und το αυτο)의 변증법과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의 관계 사이에서의 자연적인 것(Natürliche)의

* 자세한 논의는 필자가 2008년 독일 북홀름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을 참고하라.
Kang, An Il, *Von der "Nachfolge" zur "Ethik" der Verantwortung. Die Bedeutung der ethischen Konzeptionen Dietrich Bonhoeffers für die Theologie und Kirche in Südkorea*(Münster: Lit verlag, 2014)

이해

6. 그리스도의 몸 이해
7. 율법과 복음의 관계
8. 양심의 이해
9. '제자도 윤리'와 '책임의 윤리'사이의 관계

V. 본회퍼 윤리의 관심과 역할

VI.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적인 상황에서 본회퍼 윤리의 의미를 간략하게 언급하며...

• ABSTRACT •

From *Nachfolge* to *Ethik*: a thesis on Dietrich Bonhoeffer's view of ethics, how it develops

Kang, An-il

This paper is an analysis on Bonhoeffer's view of ethics: especially on how his ethical perspective has developed. The research has been done on two of his outstanding works of ethics, *Nachfolge* and *Ethik*, both of which reveal Bonhoeffer's understanding more prominently than any other works of his. For the research an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his ethical view, the two books need to be read meticulously. Before delving into the main texts, this study briefly shows how theologians have discussed Bonhoeffer's view and it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Then the historical background is provided on how these two books came to the world. Nine ethical subjects from each book are dealt *via* the means of comparison. What becomes clear through this analysis is "continuity" in Bonhoeffer's ethical view and it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which are permeated in both *Nachfolge* and *Ethik*. While the study compares the historical backgrounds and the points at issue, it also brings into focus Bonhoeffer's concern for ethics and his understanding of its role. Bonhoeffer pays attention to the real world, more specifically,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world he is living in. However, at the same time, in an attempt to integrate the world into the Word, he brings the world to "God of today" which is revealed in Jesus Christ. In other words, Bonhoeffer's ethics begins neither with an objective observation nor from an abstract idea on the principles of the world. Rather, it begins with God in Jesus Christ who actively connects the world to himself through purposeful intervention. Such understand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Bonhoeffer's life, especially when he had to practice 'mit-leben zu lernen' (a life of integration) during NAZI regime and the period of *Konspiration*. Finally, the influence of

10 『기독교사회윤리』 제32집

Bonhoeffer's ethical view on Korean church is discussed. It will help guide Korean church, still dampened by ethical crisis, to restoration.

Key words: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Ethik, Ethical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mit-leben zu lernen'* (a life of integration), Concern for ethics and his understanding of its role, *God of today*, Korean church

I. 서론

지금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20세기가 낳은 개신교 신학자를 거론할 경우 디트리히 본회퍼¹⁾를 빼놓을 수 없다. 그가 남긴 탁월한 학문적 성과들, 그가 참여했던 저항 활동들,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시대에 그리스도적 순교자²⁾로서의 역할들이 지금도 개신교 영역뿐 아니라 범 지성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표본(Vorbild)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대립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를 둘러싼 대립적인 시각의 충돌은, 특히 신학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과 히틀러 암살 공모에 대한

1) 본회퍼는 1906년 2월 4일에 독일 브레슬라우(Breslau, 현재 폴란드 도시)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다. 8형제중에 6번째로 태어난 본회퍼는 1912년에 베를린으로 이사 한다. 그 후 그곳에서 성장하고, 공부하였다. 그리고 1943년 체포된 이후 1945년 4월 9일에 플로센뷔르크(Flossenbürg)에서 그의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생애와 신앙, 신학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서로는 Eberhard Bethge, *Dietrich Bonhoeffer*(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5). 이후로 “DB”라고 표시하고, 이 논문에서 인용된 페이지는 독일원서 페이지이다. 이 책은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에베하르트 베틀게 / 김순현 옮김, 『디트리히 본회퍼』(서울: 복 있는 사람, 2014); Ferdinand Schlingensiepen, *Dietrich Bonhoeffer 1906-1945. Eine Biographie*(München: C.H. Beck, 2005); 번역서로는, 에릭 메택시스,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옮김(서울: 포이에마, 2011); Sabine Dramm, *Dietrich Bonhoeffer : eine Einführung in sein Denken*, 『본회퍼를 만나다』, 김홍진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존 D. 갓시,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 유석성, 김성복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그리고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고재길, 본회퍼, 『한국교회에 말하다』(서울: 케노시스, 2012); 박봉량, 『기독교의 비종교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이형기, 『본회퍼의 신학사상』(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1).

2) 이것을 위해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Michael Klein, “Märtyrer im vollen Sinne Wortes. Das Bild Dietrich Bonhoeffers im frühen Gedenken der kirchlichen und politischen Öffentlichkeit”, in: *EvTh.* 67. Jg., Heft 6, 432; W. Huber, Dietrich Bonhoeffer - ein evangelischer Heiliger, in: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KD) im Internet*, 2006.

신학적인 견해 차이, 그리고 윤리학자 본회퍼의 ‘윤리적 발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함 등 세 가지로 대별된다. 본 논고는 이들 세 가지 중 가장 후자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에게 있어 ‘윤리’는 핵심적인 ‘연구 주제’이다. 그는 윤리를 논함에 있어, 일반적인 현실 세계와 교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분리됨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하인츠 에투하르트 퇴트는 “교회 이해와 윤리 개념은 본회퍼에게 분리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³⁾고 주장한다. 또한 윤리와 그리스도론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마틴 호네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윤리로서 그리스도론, 그리고 그리스도론으로서 윤리”⁴⁾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이해와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윤리는 본회퍼의 대부분의 저서들과 논문들에서도⁵⁾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성도의 교제』는 중심주제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공동체를 “윤리적 집단인격”으로 보는 것이나 “대리사상”⁶⁾ 등 다양한

3) Heinz Eduard Tödt, “Judendiskriminierung 1933-Ernstfall für Bonhoeffers Ethik”, in: Eberhard Bethge, Christian Gremmels, u.a., *Ethik im Ernstfall. Dietrich Bonhoeffers Stellung zu den Juden und ihre Aktualität*, (München: Chr. Kaiser, 1982) (Internationales Bonhoeffer Forum 4), 154.

4) M. Honecker, “Christologie und Ethik. Zur Dietrich Bonhoeffers Ethik”, hg. v. Manfred Oemig u. Axel Graupner, *Altes Testament und christliche Verkündigung* (Stuttgart u. a.: Kohlhammer, 1987), 148.

5) 본회퍼의 교수자격 논문 “Akt und sein”, 강의들 (“교회의 본질” “창조와 타락”, “그리스도론”)과 『신도의 공동생활』은 윤리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언급함과 동시에 긴밀한 신학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6) Dietrich Bonhoeffer, *Dietrich Bonhoeffer Werke*, hg. v. E. Bethge, E. Feil, Chr. Gremmels, W. Huber, H. Pfeifer, A. Schönherr, H. E. Tödt, I. Tödt, München 1986-1991(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2-1999). 이후부터는 본회퍼의 전집의 표시를 ‘DBW’로 사용한다. DBW 1, “Sanctorum Communio” 『성도의 교제』, 유석성, 이신건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사회, 2010). 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페이지는 독일 원서의 페이지이다. DBW 1, 앞의 책, 99. 본회퍼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윤리적인 생각들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 안에 이미 드러나거나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29년 그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독일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목사 후보생(Vikar)으로서 사역할 때 발표한 논문 “그리스도적인 윤리의 근본 질문”⁷⁾을 보면, 그는 여전히 “라인홀트 제베르크의 주의론(Voluntarismus)적인 요소들을 논하고 있다는 점, 그 당시에 바르트와 볼트만으로 집대성된 결정적인 순간윤리(Augenblicksethik)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파울 알트하우스나 엠마누엘 히르쉬와 같은 루터교의 질서신학의 특징을 띠고”⁸⁾ 있다는 점에서도 윤리적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1932년, 본회퍼는 “세계연합사역의 신학적인 근거를 위해”⁹⁾라는 논문에서 에큐메니컬적인 평화윤리의 기본특징을 기술한다. 특히 그는 여기에서 “윤리적인 원리”에 대해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 안에서” 말해야 함을 강조한다.¹⁰⁾ 이 논문을 통해, 그가 구체성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이후로 그에게 점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보존질서(Erhaltungsordnung)의 개념을 창조질서(Schöpfungsordnung)의 개념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¹⁾ 그는 보존질서의 개념을 복음으로부터 역사적인 질서들을 이해하는 책임적인 열린 행동으로 간주한다.

대리개념을 윤리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학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이미 그 안에 윤리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7) DBW 10, 앞의 책, 323-345.

8) DBW 1, 앞의 책, 319; 다음을 참고. T. R. Peters, *Die Präsenz des Politischen in der Theologie Dietrich Bonhoeffers. Eine historische Untersuchung in systematischer Absicht*(Systematische Beiträge 18)(München: Chr.Kaiser, 1976), 33-36.

9) DBW 11, 앞의 책, 327-344.

10) C. Tietz-Steiding, “Gott ist uns immer gerade heute Gott”, in: *Bonhoeffer-Rundbrief*(Nr. 70/2003), 16.

11) H.E Tödt, *Theologische Perspektiven nach Dietrich Bonhoeffer*(München: Chr. Kaiser, 1988), 86-87.

더욱이 1933년 4월에 발표한 “유대인 질문앞에 있는 교회”¹²⁾라는 논문에서 윤리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회퍼는 나치정권을 비판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면서, 교회가 동일한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일반적인 윤리적 관점에서라기보다는 교회가 국가적인 행동 앞에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시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 뒤를 이어서 본회퍼는 그의 중요한 윤리적 문서인 『나를 따르라』(Nachfolge)를 출판하고, 몇 년 후에는 계속해서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학』(Ethik)을 쓰면서 윤리적 기획을 보다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 후반부에 쓴 편지들을 모아놓은 『저항과 복종』에서도 윤리적인 사고가 계속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본회퍼에게 윤리는 그의 저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이런 배경하에서 특별히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 사이에 윤리적 발전 성격에 대해 다룰 것이다.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으로 범위를 제한한 본질적인 이유는 그의 다른 저작들보다 윤리적 사고가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윤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상기 두 저작의 정확한 읽기는 필수적인 것이다.

정확한 읽기를 바탕으로 논문을 진행하는 저자에게는 중요한 방법적인 전제가 있다. 그것은 본회퍼 자신이 주장한 것이기도 한 것인데¹³⁾ 그의 신학과 생애를 긴밀히 연관 지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의 신학과 생애의 해석적 관계성은 서로 조건 지우는 것과 보충하는 방식이다.¹⁴⁾

12) DBW 12, 앞의 책, 350.

13) DBW 4, 앞의 책, 38 : 본회퍼는 스스로 “하나의 인식은 그 안에서 인식을 얻게 되는 그 실존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본회퍼의 친구이자, 그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책을 집필한 베틀게(Eberhard Bethge)도 ‘인식과 실존의 연관성은 그의 신학적인 저작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요한센(Friedrich Johannsen)도 ‘삶의 실체는 특정한 윤리적 문장들의 해석’이라고 주장한다.¹⁵⁾ 이런 관점으로 저자는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두 저작의 저술시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그 다음에 두 저작에 나타난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사고의 구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성격을 비교할 것이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의 저작의 전체적인 틀에서 그동안 학자들이 윤리적 발전의 성격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Christian Gremmels/Hans Pfeifer, *Theologie und Biographie. Zum Beispiel Dietrich Bonhoeffer*(München: Chr.Kaiser, 1983), 11; 참조하라. Traugott Jähnichen, “Freie Verantwortlichkeit und Zivilcourage”, in: *Dietrich Bonhoeffer-Stationen und Motiv auf dem Weg in den politischen Widerstand*, hg. v. Günter Brakelmann, u.a.(Münster: Lit Verlag, 2005), 89-109; Christoph, Strohm, *Theologische Ethik im Kampf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Der Weg Dietrich Bonhoeffers mit den Juristen Hans von Dohnanyi und Gehard Leibholz in den Widerstand*(München: Chr. Kaiser, 1989); H.E. Tödt, *Theologische Perspektiven nach Dietrich Bonhoeffer*(München: Chr. Kaiser, 1988), 77-111; Michael Weinrich, *Christliche Religion in einer „mündig gewordenen Welt“*. *Theologische Überlegungen zu einer Anfrage Dietrich Bonhoeffers in weiterführender Absicht*(Religionspädagogik heute Band 11)(Aachen,1982), 7; 압로마이트는 단지 동시에 역사적이면서 조직적인, 전기적이면서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뿌리내림과 결과를 주목하는 해석은 사실적이라고 한다. H.J. Abromeit, *Das Geheimnis Christi. Dietrich Bonhoeffers erfahrungsbezogene Christologie* (Neukirchener Beiträge zur systematischen Theologie 8)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33.

15) Friedrich Johannsen, “Verantwortliches Handeln in konkreter Zeit. Zu Bonhoeffers Ethikentwurf”, in: Ulrich Becker(Hg.), *Dietrich Bonhoeffer als Provokation für heute*(Hannover: Lutherhaus Verlag, 1986), 18.

II. 본회퍼의 윤리적 사고의 발전 성격에 대한 간략한 연구사

한프리트 물리(Hanfried Müller)가 그의 저작 『교회로부터 세계로』(Von der Kirche zur Welt)에서 본회퍼 신학에 대해 처음으로 포괄적인 설명을 한 이후로, 특별히 본회퍼의 윤리적 발전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이 화두가 되었다. 물리의 견해에 따르면 그의 윤리적 발전은 『나를 따르라』로부터 『윤리학』을 거쳐 『저항과 복종』까지 “질적인 급격한 변화(qualitative Sprünge)”를 경험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물리는 『나를 따르라』의 윤리적 특성을 “교회의 윤리”(kirchliche Ethik)라고 부른다. 물리는 『윤리학』을 『나를 따르라』와 구별하는데, 그에 따르면 『윤리학』의 윤리적 특성은 교회적인 윤리가 아니고, “교회에 대한 일반적이고 구속력 있는 윤리”라고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물리가 평가하는 본회퍼의 윤리의 발전 모습은 ‘교회의 윤리’에서 ‘그리스도적인 윤리’의 길로 간주할 수 있다.¹⁶⁾

다만, 물리가 본 본회퍼의 윤리적 사고에 대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물리는 마르크스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그것을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¹⁷⁾ 그의 윤리적 발전을 초기 생각부터 다른 것이 아닌 후기 생각을 중심으로, 즉 『저항과 복종』으로부터 그것을 평가했기 때문이다.¹⁸⁾

16) H. Müller, *Von der Kirche zur Welt. Ein Beitrag zu der Beziehung des Wortes Gottes auf die societas in Dietrich Bonhoeffers theologischer Entwicklung*(Leipzig: Koehler&Amelang, 1966), 45.

17) Jürgen Weissbach, *Christologie und Ethik bei Dietrich Bonhoeffer*(München: Chr. Kaiser, 1966), 7; 이런 견해에 반대하고 있는 판그리츠에 따르면, 물리는 마르크스적인 관점으로 본회퍼를 해석하지 않았다고 본다. A. Pangritz, *Dietrich Bonhoeffers Forderung einer Arkandisziplin- eine unerledigte Anfrage an Kirche und Theologie* (Pahl- Rugenstein- Hochschulschriften Gesellschafts- und Naturwissenschaften 259)(Köln: Pahl- Rugenstein, 1988), 32-39.

이에 반하여 존 갓세이(John D. Godsey)는 본회퍼의 신학적인 발전에는 단절이 없고, 동일한 신학의 용감한 작업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¹⁹⁾ 그는 그리스도론을 본회퍼 신학의 통일적인 요소라고 간주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몰트만(J. Moltmann), 바이스바흐(J. Weissbach), 그리고 베헤게는 급격한 변화(keine Wende)는 없고, 연속적인 발전이 있음을 주장한다.²⁰⁾ 에른스트 파일(Ernst Feil)도 그의 책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에서 윤리적 발전 성격을 연속적인 발전과정으로 기술하고 있다.²¹⁾ 그는 이를 위해 본회퍼의 그리스도론과 세계이해에 대한 연구의 근거 위에서 본회퍼 신학의 통일성을 연속적인 발전이라는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티모 라이너 페터스(Tiemo Rainer Peters)도 파일과 비슷하게 본회퍼의 윤리적 성격을 연속적인 확장으로 평가한다.²²⁾ 1980년대에 들어서서 뮐러(G. L. Müller)는 본회퍼의 삶과 저작들 안에 원리적인 계속성이 확고한 출발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²³⁾

18) J. Dinger, *Auslegung, Aktualisierung und Vereinnahmung. Das Spektrum der deutschsprachigen Bonhoeffer-Interpretation in den 50er Jahren*(Neukirche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98), 186.

19) John D. Godsey, *The Theology of Dietrich Bonhoeffer*(Philadelphia, 1960), 27, 264: "the writer must now disclose his own conviction that the last development in Bonhoeffer's theology, while indeed unexpected, does in no sense represent an break with the theology of the former periods, but rather a bold consummation of the same"

20) J. Moltmann, *Herrschaft Christi und soziale Wirklichkeit nach Dietrich Bonhoeffer* (Theologische Existenz Heute) (München, 1959), 5, 32; Jürgen Weissbach, 앞의 책, 7; E. Bethge, DB, 앞의 책, 246-250, 760-862, 958-968.

21) Ernst Feil, *Die Theologie Dietrich Bonhoeffers*, 2.Auflage. (München: Chr. Kaiser, 1971), 214.

22) T. R. Peters, 앞의 책, 84-90.

23) G.L. Müller, *Für Andere Da. Christus-Kirche-Gott in Bonhoeffers Sicht der mündig gewordenen Welt*(Paderborn: Verlag Bonifacius, 1980), 23-33;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발간된 본회퍼 신학의 발전에 대한 논의는 위에서 논의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생략하였다

간략하게나마 본회퍼의 윤리적 발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사이의 윤리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대부분의 해석은 『윤리학』에서부터 『저항과 복종』까지의 윤리적 발전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소수의 학자들 즉 한프리트 물러와 파일처럼 서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해석자들이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사이의 윤리적 발전에 대한 질문을 다루었지만 그 후에는 학문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²⁴⁾

따라서 본 논문은 본회퍼의 윤리를 이해하기 위해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사이의 윤리의 발전 성격을 분석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중요하다.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사이에서 비교될 수 있는 통일성(공통성)과 지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윤리적 발전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을까? (질적인 근본 변화, 동일한 발전, 계속적 발전, 아니면 다른 무엇?) 본회퍼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관심은 무엇인가? 윤리적 발전을 연구하면서 주어진 역사적인 상황아래서 윤리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그리고 이 연구가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토론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 한국 신학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24) 피터 뢰저가 본회퍼의 양심개념을 중심으로 본회퍼 윤리의 발전을 논의한 것 외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Peter Möser, *Gewissenspraxis und Gewissenstheorie bei Dietrich Bonhoeffer*(Heidelberg, 1983), 442; 최근에 플로리안 슈미츠는 본회퍼의 윤리적 발전 성격을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사이에 나타난 세계이해와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의 화해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통일적이라고 주장한다. Florian schmitz, *Nachfolge. Zur Theologie Dietrich Bonhoeffers*(Goe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13), 191.

III.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의 저술의 간략한 역사적 배경

1. 『나를 따르라』의 역사적 배경

1930/31년은 본회퍼에게 중요한 시기이다. 그가 장학생으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있을 때 4명의 친구-인생 전체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를 만나게 된다. 그 중 평화운동자이면서 신학자 프랑스인 장 라세르(Jean Lasserre)는 본회퍼의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발전에 깊은 영향을 준다. 그를 통해 본회퍼는 산상수훈과 예수의 평화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성에 새로운 강조점을 둔다. 그리고 미국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에큐메니컬 운동의 깨어있는 정신을 갖게 된다. 본회퍼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에큐메니컬 운동과 학문적인 교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책임을 맡기에 이른다.

1932/33년 겨울학기 에 베를린 대학에서의 “그리스도와 평화”라는 강연에서 본회퍼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진 생각과는 다른 사고들을 보여주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제자도를 율법적인 것이 아닌 선과 악에 대한 질문으로 설명한 것에 반해, 베를린 대학 강연에서는 산상수훈을 가리켜 ‘그리스도적인 실천으로서 또는 부름으로서 제자도를 위한 호소’로 이해한다.²⁵⁾

1933년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를 위한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한다.²⁶⁾ 베트게도 『나를 따르라』의 주제와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미 1933년

25) DBW 10, 앞의 책, 323-345; 참조하라. Bertold Klappert, „Weg und Wende Dietrich Bonhoeffers in der Israelfrage“, in: *Ethik im Ernstfall: Dietrich Bonhoeffers Stellung zu d. Juden u. ihre Aktualität*, hg. v. W. Huber u. Ilse Tödt(München: Chr. Kaiser, 1982)(IBF 4), 100-105.

26) Strunk, Reiner, *Nachfolge Christi: Erinnerungen an einer evangelischen Provokation* (München: Chr. Kaiser, 1981), 190-201 참조.

에 완전히 발전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1933년의 사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²⁷⁾ 베트게의 부인인 레나테 베트게도 본회퍼에게 있어 1933년은 그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시기라고 본다.²⁸⁾ 이처럼 1933년은 본회퍼에게 『나를 따르라』의 저술을 위해 중요한 시기였다.

1933년 1월은 히틀러가 결정적으로 정권을 잡은 시기이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는 집권 초창기부터 교회와 국가의 동일시화(Gleichschaltung) 즉 독일민족과 교회를 히틀러화(나치화)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교회는 히틀러 정권에 대해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만 했다. 본회퍼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그 시기에, 구체적으로 1933년 2월에 행한 라디오 연설에서 “젊은 세대에게 지도자 개념의 변화”²⁹⁾라는 주제의 연설을 행하면서, 그 당시 우상화 되어가고 있는 지도자의 개념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런 우상화는 독일사회주의의 지도원리로 왜곡되고 있음을 주장한 본회퍼는 그것을 분명히 거부하고 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한다. 이때부터 나치에 대한 그의 교회투쟁이 본격화된다. 이것은 1930년 초부터 일어난 ‘독일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독일 그리스도인들’(Deutschen Christen)의 입장에 대한 분명한 거부였다.

이런 그의 입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치는 유대인들에 대한 극단의 조치를 취한다. 1933년 4월에 공포한 아리안조항(Arierparagraph)이 그것이다. 그는 이런 나치의 전략을 “유대인 문제 앞에서의 교회”³⁰⁾라는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며,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정면으로 저항한다. 그에게 나치주의에 저항하는 것은 곧 유대

27) E. Bethge, BD, 앞의 책, 523-525.

28) Renate Bethge, *Dietrich Bonhoeffer*(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4), 24.

29) DBW 12, 앞의 책, 240-242.

30) 위의 책, 350.

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그래서 슈트룬크는 나치제국의 반셈족주의에 저항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나를 따르라』를 위한 본회퍼의 사전작업이라고 간주한다.³¹⁾ 본회퍼에게 유대인의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이며, 교회투쟁의 적극적인 동인이었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는 1933년 9월 27일에 실시한 국가적인 전체총회에서, 아리안 조항을 교회의 영역까지 확대한다. 이것은 본회퍼로 하여금 교회투쟁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왜냐하면 그의 판단에 따르면, 이것은 신앙고백 상황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본회퍼는 독일인들로 구성된 공동체 목회를 위해 영국으로 간다. 그가 영국에 있는 동안, 그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바르멘선언을 위한 회의가 1934년에 부퍼탈 바르멘에서 3일 동안 개최된다. 칼 바르트에 의해 작성된 6개 문항으로 된 선언문이 발표됨으로 고백교회의 탄생의 계기가 된다. 그에게 중요한 이슈인 유대인문제가 바르멘선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르멘선언을 높게 평가한다. 그것은 참다운 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것이며, 특별히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분명한 차이를 표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근거해서 본회퍼는 독일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참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³²⁾ 또한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교회투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시기에 본회퍼는 에큐메니컬 회의에 참여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투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더욱이 중요한 평화의 문제, 전쟁위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31) Strunk, Reiner, 앞의 책, 197ff.

32) DBW 14, 앞의 책, 131; Rainer Mayer, Was wollte Dietrich Bonhoeffer in Fanö?, (Theologische Beiträge 19.1988), 79.

그 후 그는 고백교회의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맡기 위해 고백교회의 요청에 따라 영국에서의 목회사역을 끝내고 독일로 돌아온다. 그는 처음에는 징스트에서 시작하고 몇 달 후 핀켄발트에서 1937년 9월 게스타포에 의해서 폐쇄 될 때까지 고백교회 소속 목회자 후보생을 교육한다. 그는 『나를 따르라』를 이런 교회투쟁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속에서 1937년 핑켄발트에서 저술한다.³³⁾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따르라』를 1933년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저술한 역사적 입장에 덧붙여서 당시 신학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언급해야 한다. 당시 교회는 신학적으로 위협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후기 루터주의(Postlutheraner)가 루터의 칭의 교리를 바르지 않게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의 세상화로 변질된다³⁴⁾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위기 앞에서 본회퍼는 바르지 않게 사용된 신학적 개념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나를 따르라』를 저술한다.

2. 『윤리학』의 역사적 배경

본회퍼는 『윤리학』을 1939/1940년부터 1943년 4월에 그가 감옥에 가기까지의 기간 동안 기록한다. 이 시기는 그에게 공모(Konspiration)의 시기로 성격지을 수 있다. 공모활동 기간에 그는 『윤리학』을 위한 저술을 기획한다.

1938/1939년 사이에 본회퍼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백교회안에서 점점

33) 피터 짐머링은 『나를 따르라』를 고백교회의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시금석으로서 산상 수훈을 해석하기 위한 시도로 설명한다. Peter Zimmerling, *Bonhoeffer als Praktischer Theologie*(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06), 68.

34) 참조하라. Strunk, Reiner, 앞의 책, 206.

더 고립된다. 고백교회는 1938년 히틀러에 대한 선서의 문제에 직면하여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 이런 고백교회의 행동을 베트게는 1938년의 고백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평가한다.³⁵⁾ 그리고 그의 군복무 문제도 거기에 한 몫을 한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는 독일을 떠나 다시 미국으로 여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그는 독일로 1939년 7월에 다시 돌아온다.³⁶⁾ 이후 그의 삶은 독일운명과의 밀접한 참여 속에서 정치적인 공모활동을 하는 결정적 단계로 접어든다. 그리고 1939년 말부터 그는 “오스타도다니 그룹 안에서 히틀러와 그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적인 제거의 필요성”³⁷⁾을 받아들인다.

본회퍼는 공모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그의 “삶의 과제”³⁸⁾인 『윤리학』을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가 “군사적인(저항적인) 여행”³⁹⁾으로 간주하는 여러 나라에 대한 여행을 진행한다. 1942/1943년에는 그의 사상에서 많은 비판과 토론을 야기하는 히틀러 암살공모에 동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이 때문에 그는 게스타포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간다.

지금까지 『윤리학』이 쓰인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의 윤리적인 사고들은 그가 행하고 있는 저항적인 공모활동이라는 역사적인 상황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35) E. Bethge, 앞의 책, 673.

36) 두번째 미국여행에서 곧 바로 독일로 돌아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Traugott Jähnichen, “Freie Verantwortlichkeit und Zivilcourage”, 앞의 책, 93.

37) G. Brakelmann, „Dietrich Bonhoeffers Tätigkeit in der Konspiration 1939-1945“, in: *Dietrich Bonhoeffer-Stationen und Motiv auf dem Weg in den politischen Widerstand*, hg. v. Günter Brakelmann, u. a. (Münster: Lit Verlag, 2005), 112.

38) E. Bethge, 앞의 책, 804.

39) DBW 16, 앞의 책, 127.

IV.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에 나타난 본회퍼 윤리의 발전에 대한 논리(Logik)-비교 관점에서.

지금까지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이 쓰인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신학적-윤리적 구조에 대한 분석 작업⁴⁰⁾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에 나타난 윤리적 사고의 발전에 대한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신학적-윤리적 구조분석을 통해 중요하게 부각된 그의 윤리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대표적인 9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비교하며 전개할 것이다.

1.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본회퍼의 윤리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교회투쟁시기와 저항의 시기에 교회와 국가사이의 관계성에 대하여 그가 분명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것과 관련된 그의 교회와 국가의 이해는 1932년에 발표한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Dein Reich komme)”라는 논문을 통해 이미 알 수 있는데, 그 논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주의적이거나 세상을 등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⁴¹⁾ 이것을 가지고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세상에 대한 역동적인 교회의 관계성”⁴²⁾이라 부르며 구체화하고 있다.

40) 자세한 분석은 나의 학위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An il kang, 앞의 책, 36-86, 137-218.

41) DBW 12, 앞의 책, 273.

42) 위의 글, 264-278; 스트롬은 본회퍼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근거로 서로 대면하는 관계성 안에서 서로 동등한 권리의 공존으로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로 귀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hristoph Strohm, 앞의 책, 49.

그리고 1933년 4월에 발표한 논문 “유대인 질문 앞에 직면한 교회”에서 국가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3가지로 서술한다. 첫 번째로 교회는 국가의 합법적인 행동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국가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희생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수레바퀴 그 자체를 멈추게 해야 한다.⁴³⁾ 이런 생각들은 『나를 따르라』에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동일한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나를 따르라』가 쓰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본회퍼가 “보이는 공동체”라는 부분에서 말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상이 교회의 형제를 멸시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를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세상이 그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그는 도와주고 고통을 덜어 줄 것이다. 세상이 그를 멸시하고 모독할 때, 그는 형제의 치욕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줄 것이다...세상이 거짓 속에 숨는다면,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 입을 열 것이고, 진리를 증언할 것이다.”⁴⁴⁾

본회퍼는 여기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서로 적대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서로 마주 대하고 있고 밀접한 연관 속에 있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⁴⁵⁾

43) DBW 12, 앞의 책, 352-354.

44) DBW 4, 앞의 책, 252-253; 『나를 따르라』, 본회퍼 지음/손규태, 이신건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98.

45) 본회퍼는 국가와 교회 공동체간의 대립적인 관계성을 말한다.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요구되고 접수된 예배와 교회 직무와 시민 생활의 영역이 세상의 영역 요구와 충돌할 때, 한계선은 분명히 드러난다. 한계선은 양편에서 동시에 드러난다. 교회 편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고백할 필요가 있을 때요, 그리고 세상 편에서는 현명하게 물러서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다. 후자의 경우에 그리스

이런 생각은 『윤리학』에서도 드러나는데, 특히 위임이론을 따라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정한다. 위임이론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는 서로 견제하면서(Gegeneinander) 각각의 위임에 서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서로를 위하며(Füreinander) 함께하는 관계(Miteinander)로 본다.

2. 그리스도 형상의 이해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의 후반부인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인간되신 분의 형상,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형상, 변화된 분과 부활하신 분의 형상”으로 말한다. 이것과 동일하게 그는 『윤리학』의 한 단편 “형성으로서의 윤리(Ethik als Gestaltung)”에서도 “인간이 되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을 다룬다.

본회퍼에 따르면 이 형상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신 표본(Vorbild)을 따라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그 진실한 삶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변화시키신 것처럼 변화되고, 그가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고, 그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⁴⁶⁾는 것이다. 『윤리학』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작동시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간을 그와 함께 동일한 형상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이다.⁴⁷⁾ 두 저작의 이러한 관점은 일관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 본회퍼에게 그리스도론은 그의 윤리

도인은 공개적으로 고난을 받는다.” 디트리히 본회퍼, 『나를 따르라』, 앞의 책, 309.

46) 위의 책, 303.

47) DBW 6, 앞의 책, 80-81.

적 생각에서 통일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3. 유대인 문제의 역할

본회퍼에게 유대인 문제는 그가 윤리적 결단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가 『나를 따르라』를 쓰기 전부터 유대인의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아젠다였다. 교회투쟁시기에도 그에게 유대인 문제는 나치주의를 비판하는 첫 번째 동인이었다. 퇴트에 따르면 “본회퍼는 제3제국과의 첫 번째 구체적인 갈등을 평화문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유대인 문제”로 시작했다⁴⁸⁾고 말한다.

그가 산상수훈 5장을 주해하면서 “형제들”에 대해 다룬다. 그가 생각하는 형제란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는 형제가 아닌,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것은 형제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의 개념을 통해 강조된다. 물러(C. R. Müller)의 평가에 따르면 『나를 따르라』에서 본회퍼는 유대인 문제를 “형제를 위한 책임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⁴⁹⁾ 물러는 형제들을 유대인, 이스라엘백성으로 간주한다. 『나를 따르라』에서 본회퍼는 유대인 문제를 형제를 위한 책임의 질문 안에서 받아들인다.⁵⁰⁾ 클라퍼트도 『나를 따르라』에서 말한 “형제에 대한 섬김”은 우선적으로 공동체 밖에 있는 유대형제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⁵¹⁾ 『윤

48) H. E. Tödt, 앞의 책, 89.

49) DBW 4, 앞의 책, 124-12; 참조하라. C. R. Müller, *Dietrich Bonhoeffers Kampf gegen die nationalsozialistische Verfolgung und Vernichtung der Juden. Bonhoeffers Haltung zur Judenfrage im Vergleich mit Stellungnahme aus der evangelischen Kirche und krisen des deutschen Widerstandes* (Heidelberger Untersuchungen zu Widerstand, Judenverfolgung und Kirchenkampf im Dritten Reich 5)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90), 225-227.

50) C. R. Müller, 앞의 책, 226.

51) Bertold Klappert, 앞의 책, 98.

리학』의 “유산과 타락”에서도 유대인을 위한 정치적 책임을 위한 그의 활동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연대성이라는 점에 그 근거를 둔다.⁵²⁾ 또한 “자연적 삶”이라는 단편에서도 그 당시 히틀러 정부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탄압 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이런 생각과 동일하게 베틀게가 “본회퍼가 활동적으로 정치적 저항의 발걸음을 하게 된 결정적인 주요동기가 제3제국이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태도였다”⁵³⁾고 말한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4. 하나님의 현실성과 세계의 현실성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하나님의 현실성과 세계의 현실성의 관계성에 다룬 내용은 많지 않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자신의 현실성의 주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따르라』에서 세계가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거나 세계 현실성에 대해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⁵⁴⁾ 왜냐하면 세계는 여기에서 제자도의 공간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⁵⁵⁾ 그는 『윤리학』에서 이것을 더 본격적으로 다룬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에서 하나님의 현실성과 세계의 현실성의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52) DBW 6, 앞의 책, 95.

53) E. Bethge, “Dietrich Bonhoeffer und Juden”, in: Feil Ernst/Tödt Ilse(Hg.) *Konsequenzen. Dietrich Bonhoeffers Kirchenverständnis heute*(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0), 199.

54) 파일은 『나를 따르라』 안에서 세계 이해는 우선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세계이해는 『윤리학』으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극복되었다고 생각한다. E. Feil, 앞의 책, 270, 276, 290-313.

55) DBW 4, 앞의 책, 248.

으로 진행되는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계속성에 뿌리를 둔 연속적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에 비해 『윤리학』에서 현실이해가 더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를 따르라』에서 주로 제자도가 신앙인들에게 제한되어 있고, 즉 세상에 대한 포괄적인 현실적 이해보다는 그리스도 제자도의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어야 함을 강조한다면,⁵⁶⁾ 『윤리학』에서는 신적 현실성과 세계 현실성의 개념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통해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현실 이해로 확장되었으며, 특히 현실성의 이해에서 운동(Bewegung)이라는 개념은 현실의 개념이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몰트만의 주장대로 역사로서 현실성의 참여를 의도한다.⁵⁷⁾ 더욱이 위임이론(Mandate)을 통해 신앙인들을 전체 현실성 앞에 직면하게 하고, 책임의 장소로서 직업(Beruf)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게 하며,⁵⁸⁾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die Herrschaft Christi)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현실 개념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한다.⁵⁹⁾

56) 위의 책, 297.

57) DBW 6, 앞의 책, 44; J. Moltmann, 앞의 책, 48.

58) DBW 6, 앞의 책, 292, 294.

59) 위의 책, 347: 참조하라. 베틀게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의 주권의 배타성은 『나를 따르라』의 메시지이고, 주권영역의 확장은 『윤리학』의 강조점이라 한다. E. Bethge, DB, 앞의 책, 806; 참고. 갓세이는 이 발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There can be little doubt that the theology of Bonhoeffer expressed in his Ethik is an fairly direct development of his thought of the earlier periods. Bonhoeffer's former concentration on the exclusive claim of Jesus Christ, which was necessary during the German Church Struggle, led ineluctably to the recognition and exposition of Jesus Christ's total claim upon all spheres of life in the world" John D. Godsey, *The Theology of Dietrich Bonhoeffer*(Philadelphia, 1960), 203.

5. 특별한 것과 동일한 것(περισσόν und το αὐτό)의 변증법과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의 관계 사이에서의 자연적인 것(Natürliche)의 이해

이 부분의 관심은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에서 “자연적인 것”(das Natürliche)을 본회퍼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있다. 『나를 따르라』에서 그는 ‘자연적인 것’의 세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다루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주어진 공간을 차지하려는 교회의 투쟁은 교회의 성화다”⁶⁰⁾라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성도들을 위한 필수적인 통과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⁶¹⁾ 물론 『나를 따르라』에서 “비범성”과 “자연적인 것”의 관계가 동일시되거나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서로 마주보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⁶²⁾ 『나를 따르라』의 강조점이 교회 투쟁의 시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로 “비범성”(Außerordentliche)이 다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것”은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윤리학』에서는 ‘자연적인 것’을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통해 자세하게 구체화시켰다. 특히, 그는 히틀러 전제 정치의 시기에 자행된 ‘비자연적인 것’(안락사와 강제불임수술 등)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통해 논의를 심화한다. 그리고 그는 “자연적 삶”이라는 단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자기목적성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삶’의 윤리적 이해를 도출하게 된다.⁶³⁾ 여기에서 그는 그동안 복음주의 신학에서 소홀히 여겨졌던 “자연

60) DBW 4, 앞의 책, 278; “나를 따르라”, 앞의 책, 329.

61) DBW 4, 앞의 책, 278; T.R. Peters, 앞의 책, 60.

62) Gunter M. Prüller-Jagenteufel, Befreit zur Verantwortung. Sünde und Versöhnung in der Ethik Dietrich Bonhoeffers(Münster: Lit Verlag, 2004), 215: 야겐토이펠은 강조하기를, 본회퍼의 변증법은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론적인 집중이다. 이것은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그러나 세계 속으로 동화되는 것을 또한 부정한다: 하나님과 세계, 인간은 섞이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63) DBW 6, 앞의 책, 173.

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구체화를 존재유비(analogia entis)로부터가 아니고 복음으로부터 해석하며 진행한다.⁶⁴⁾

6. 그리스도의 몸 이해

『나를 따르라』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의 장소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Er) 자신이시며 동시에 그 공동체이시다(고전 12:12). 예수 그리스도는 오순절 이후로 이 땅에서 그 몸 즉 공동체의 형태 안에서 사신다. 여기에 그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부활하신 분으로 있고, 또한 받아들여진 인간성으로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진실하고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⁶⁵⁾

『나를 따르라』에서 본회퍼는 우선 공동체와 그리스도 사이에 동일성을 강조한다. 『윤리학』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전체 인간과 함께 하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 인간을 받아들인다. 『나를 따르라』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땅 위에서 공간을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인간됨 안에서 땅위의 자신의 공간을 요구하신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땅 위의 유일한 한 장소에만 더 이상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고양되

64) 베틀게는 본회퍼에게 ‘자연적인 것’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존재유비(analogia entis)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론과 그리스도론”에 근거한다고 강조한다. E. Bethge, DB, 앞의 책, 807-808; 참고하라, Matthias Neugebauer, “Die theologische Lebensbegriff Dietrich Bonhoeffers”, in: *Der Wert menschlichen Lebens. Medizinische Ethik bei Karl Bonhoeffer und Dietrich Bonhoeffer* (Berlin: Wichern, 2006), 147-165.

65) DBW 4, 앞의 책, 232.

신 그리스도는 세상과 가까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공동체의 형태로, 세상 가운데로 밀고 들어간다.”⁶⁶⁾ 여기에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 그는 『나를 따르라』에서 세상의 현실에 대한 논의를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상과 다름에 그 강조점을 두었다면,⁶⁷⁾ 『윤리학』에서는 “위임이론”과 “대리(Stellvertretung)”의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과 갖는 관계성을 더 구체화하고, 전체 인간(세계)으로 확대한다.⁶⁸⁾

7.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본회파의 윤리를 위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순서배열에 대한 이견이 있다. 알트하우스나 엘러트는 루터가 고정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율법과 복음’의 순서를 따른다. 이에 반해 칼 바르트는 순서를 바꾸어 ‘복음과 율법’을 말한다. 본회파에게는 이런 배열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의 비밀로부터 나온 은혜로운 계명 안에서 ‘율법과 복음’은 살아있고, 또 서로 다른 것이 서로 맞물려 있음을 강조한다.”⁶⁹⁾ 『나를 따르라』에서 그는 ‘값비싼

66) 위의 책, 254.

67) 위의 책, 233, 297.

68) DBW 6, 앞의 책, 53, 54-61, 392-412; 다음은 『나를 따르라』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이해가 예정된 자들의 구원에 제한되어 있는 것에 반해, 『윤리학』에서는 전체세계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Hans Friedrich Daub, *Die Stellvertretung Jesu Christi. Ein Aspekt des Gott-Mensch-Verhältnisses bei Dietrich Bonhoeffer*(Berlin: Lit Verlag, 2006), 469.

69) A. Schödl, *Unsere Augen sehen nach dir. Dietrich Bonhoeffer im Kontext einer asketischen Theologie*(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6), 122; 또한 그것을 위해 참조하라. 토마스 슈레겔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계명과 은혜의 내포적인 이해로서 간주한다. Thomas Schlegel, „Gesetz und Evangelium“ - „Evangelium und Gesetz“? Das *discrimen legis et evangeli* als Leitgedanke in Dietrich Bonhoeffers „Nachfolge“,

은혜'와 '값싼 은혜'의 관점 안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다룬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포함된 은혜이다. 그렇기에 율법 없는 복음은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제자도는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교회투쟁의 배경 하에서 율법과 복음, 또는 신앙과 복종을 실행하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복음과 율법', 신앙과 복종의 연결을 개신교적인 윤리의 근본적인 요소임을 유명한 문구를 통해 강조한다. "단지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고, 단지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이다."⁷⁰⁾ 이것을 통해 그에게 '율법과 복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통일성(Einheit)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잘못된 동일시(falsche Gleichsetzung)를 의미하지 않는다. 크리스티안 티츠는 이 문구를 "신앙과 순종의 실존적인 순환(Zirkel)"⁷¹⁾이라고 해석한다. 이 말은 이 순환을 통해서 순환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 안에서 두 가지의 조건들이 동시적인 완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나를 따르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윤리학』에서도 잘못된 동일시 없는 통일성을 강조한다.⁷²⁾ 그러나 『나를 따르라』에 비해 『윤리학』에서는 연속적인 발전이 보인다. 본회퍼가 『나를 따르라』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통해 지키고자 한 것은 당시 시대적인 흐름 앞에서 교회와 신앙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왜냐하면 '값싼 은혜'는 교회투쟁의 역사적인 연관성 안에서 "신에 대한 적대적인 우주의 기

in: Ders./ A. Schwarze, *Der Kampf um die teure Gnade. Studien zu Dietrich Bonhoeffer*(Osnabrück: Der Andere Verlag, 2002), 48.

70) DBW4, 앞의 책, 52.

71) Christiane Tietz, "Nur der Glaubende ist gehorsam, und nur der Gehorsame glaubt. Beobachtungen zu einem existentiellen Zirkel in Dietrich Bonhoeffers Nachfolg", in: *Dietrich Bonhoeffer Jahrbuch 2 2005/2006* hg. v. Victoria J. Barnett, u.a., 2006, 170-181.

72) A. Schödl, 앞의 책, 122.

능⁷³⁾으로 나치제국을 간접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의 “잘못된 사용은 그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파괴로 귀결될 수 있기⁷⁴⁾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상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그는 『나를 따르라』에서 주로 신앙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논의한다. 그러나 『윤리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현실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와 신앙인들을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신앙인(die Ungläubigen)들에게도 유효하게 확장된 생각을 보여준다. “전체 율법과 전체 복음은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인간에게 속한다.”⁷⁵⁾ 그리고 세상에 대해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안에서, 말하자면 ‘복음과 율법’ 안에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영역의 확장⁷⁶⁾이 드러난다. 더욱이 『윤리학』에서 율법은 삶을 섬기는 것(Lebensdienstliche)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8. 양심의 이해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그의 윤리와 신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양심(Gewissen)의 개념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회퍼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부터 강의들, 그리고 세미나 작업(1934)⁷⁷⁾에서

73) P. Gosada, *Du sollst keine anderen Götter haben neben mir. Gott und die Götzen in den Schriften Dietrich Bonhoeffers*(Neukirchener Theologische Dissertationen und Habilitationen 2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141.

74) DBW 4, 앞의 책, 37-38.

75) DBW 6, 앞의 책, 359. “율법은 세상에게, 복음은 교회 공동체에게 유효하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율법과 복음은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과 교회 공동체에 유효하다.”

76) 위의 책, 347.

77) 이 시기에 대한 양심의 이해를 위해 참조하라. Reinhold Mokrosch, “Das Gewissensverständnis Dietrich Bonhoeffers“, in: *Bonhoeffer und Luther. Zur Sozialgestalt des Luthertums in der Moderne*(München: Chr.Kaiser, 1983), 58-92.

설명한 양심의 이해는 간접적으로 『나를 따르라』에 드러난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양심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취하는데, 그러나 그가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놓으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놓는다.”⁷⁸⁾ 그는 『나를 따르라』에서 또한 “낮선 위험, 다른 사람의 잘못에 참여”⁷⁹⁾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 생각을 그는 『윤리학』에서도 다시 받아들인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양심은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잘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⁸⁰⁾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짊어지는 것은 단지 자유로운 양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유로워진 양심은 나 자신을 나와 함께 그리스도안에서 하나 됨(Einheit)으로 부르신다. 양심의 불일치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짊어질 수 없다. 단지 예수의 부름을 통해서 인간은 “양심과 죄들의 분리로부터 복종의 단순함”⁸¹⁾에 도달한다. 그가 『나를 따르라』에서 양심의 개념을 『윤리학』에서보다 적게 다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일관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그는 『윤리학』에서 그의 양심이해를 분명하게 확장한다. 그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존의 일치점이라면, 양심은 언제나 형식적으로 나의 본래적 존재로부터 나 자신 스스로와 일치로의 부름으로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일치점은 더 이상 율법으로 사는 나의 자율성으로의 회귀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⁸²⁾ 그는 양심을 관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⁸³⁾ 그리고 이런 관계적인 양심의 개념을 그는

78) DBW 1, 앞의 책, 126.

79) DBW 4, 앞의 책, 106.

80) DBW 6, 앞의 책, 279.

81) DBW 4, 앞의 책, 67.

82) DBW 6, 앞의 책, 278.

83) Friederike, Barth, *Die Wirklichkeit des Guten. Dietrich Bonhoeffers "Ethik" und ihr*

삶의 법(Lebensgesetz)과의 연관성 안에서 논의를 계속한다. 삶의 법은 그 법을 따름으로 인간이 자신이 예수그리스도안에서 근거 지워진 통일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은 또한 자유로운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삶의 법의 위반을 경고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⁸⁴⁾ 이 삶의 법은 십계명과 산상수훈, 그리고 사도적 권면에서 해석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이다.⁸⁵⁾ 그리고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구체적인 책임의 근거, 본질, 그리고 목적 이기에, 책임과 양심의 관계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책임은 양심을 통하여 매어지고, 양심은 책임을 통하여 자유로워진다.”⁸⁶⁾ 이런 연관성을 『나를 따르라』에서는 자세하게 볼 수 없지만, 『윤리학』에서는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9. ‘제자도 윤리’와 ‘책임의 윤리’⁸⁷⁾사이의 관계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제자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묶임(매임)”⁸⁸⁾ 으로 정의한다. 제자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고난에의 참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한 공동참여를 포함한다.

philosophischer Hintergrund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13.

84) DBW 6, 앞의 책, 282-283; 참조하라. Peter Möser, 앞의 책, 393.

85) DBW 6, 앞의 책, 282.

86) 위의 책, 283.

87) 『윤리학』안에 나타난 본회퍼의 윤리를 ‘책임윤리’로 간주하는 학자들이 많다. 필자도 그들의 의견을 따른다. 퇴트와 예니헨은 본회퍼의 윤리기획을 책임윤리로 주장한다. Tödt, 앞의 책, 139; Traugott Jähnichen, *Werte-Nomen-Gewissen. Was bestimmt unser Leben?*(Bad Oeynhausien, 2001), 23-26; 프리드리히 요한센은 본회퍼의 윤리기획을 책임윤리와 변형된 상황윤리로 간주한다. 책임윤리로서 본회퍼의 윤리기획은 상황윤리의 약점과 규범윤리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고, 변형된 상황윤리로 보는 것은 윤리적 결단을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문제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Friedrich Johannsen, 앞의 책, 26.

88) DBW 6, 앞의 책, 347; 참고하라. E. Bethge, 앞의 책, 806.

『윤리학』에서 그는 책임의 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대답으로서 삶”⁸⁹⁾ 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현실성에 대한 전체성과 통일성의 대답’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책임의 윤리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축은 대리사상과 현실적합성(Wirklichkeitsgemäßheit)이라는 생각을 포함한, ‘함께하는 사람들(Mitmenschen)과 하나님에게 묶임(Bindung)’이고, 다른 축은 ‘자신의 삶의 자유’이다. 이것은 삶과 행동의 자기평가와 확실한 결단의 모험(Wagnis) 안에서 가시화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도의 윤리와 책임의 윤리 사이에서 동일한 관점이 연속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묶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의 참여를 의미하면서, 그것은 대리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⁹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의 제자들의 삶에서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⁹¹⁾ 그는 『나를 따르라』에서와 동일하게 『윤리학』에서도 이런 묶임을 대리사상과 책임적인 삶의 근본적인 구조로서 책임윤리의 컨텍스트 안에서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응하는 관점들을 『나를 따르라』보다 『윤리학』에서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다룬다.

그는 ‘책임의 윤리’ 안에서 그리스도론과 교회론, 그리고 윤리학을 신학적으로 함께 볼 수 있게 하고,⁹²⁾ 인간의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 관여하고 있는⁹³⁾ 대리에 대한 생각을 세계적인 것과 그리스도적인 것의 관계성과 각각의 특별성에 근거한 현실적합성의 관찰을 통하여, 그리고 사실에 대

89) DBW 6, 앞의 책, 254.

90) DBW 4, 앞의 책, 84.

91) 위의 책, 303.

92) DBW 1, 앞의 책, 321(편집자 후기).

93) Hans Friedrich Daub, 앞의 책, 469.

한 행동과 본질적 법칙의 근원적인 내재 안에서 사실적합성에 대한 행동을 통하여 확장한다. 이것으로써 그는 대리의 영역을 『나를 따르라』에서 보다 더 풍성하게 다룬다. 그렇다고 『나를 따르라』 안에서 세계에 대한 대리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⁹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관점에 근거하여 대리가 제자도의 근거로서 이해되고 있다.⁹⁵⁾ 그러나 『윤리학』처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가 『나를 따르라』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지 않는 생각을 『윤리학』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강조점의 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는 말하길,

“우리가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의 재화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책임을 위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에 반대하여 전면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세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계 내적인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가 세계와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⁹⁶⁾

세계에 대한 온전한 수용보다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나를 따르라』가 쓰인 시기에는 세계 속에서 제자공동체가 어떻게

94) 최근에 플로리안 슈미츠는 본회퍼의 윤리적 발전 성격을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에서 나타난 세계이해와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의 화해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통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의견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회퍼의 세계이해는 『나를 따르라』에서 부정적으로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에서 추론한 세계이해를 가지고 ‘교회의 윤리’는 곧 ‘세계적인 윤리’라고 동일시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에서 드러난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 Florian schmitz, 앞의 책, 191, 특히 그가 본회퍼의 세계이해를 연구한 154-234를 참조하라.

95) DBW 4, 앞의 책, 236

96) 위의 책, 260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대한 ‘책임의 윤리’의 방법을 『윤리학』에서 ‘죄책을 떠맡음’(죄책 수용, Schuldübernahme)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장한다. 비록 그가 『나를 따르라』에서 ‘죄책을 떠맡음’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죄를 지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 제자도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⁹⁷⁾ 『윤리학』에서 ‘죄책을 떠맡음’이라는 개념 아래서, 책임적인 행동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된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낯선 사람의 죄 안으로 들어감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정점의 각오로 더 확장된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들은 책임적인 행동을 통하여 직업 의무의 영역을 넘어서게 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저항 안에서 직업 의무의 경계를 넘어감을 정당화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진정한 목회자가 되었다.⁹⁸⁾

이것을 통해 그의 책임의 윤리는 제자도의 윤리에 비해,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동의 영역을 함께하는 세계와 모든 다른 삶의 존재들의 자기목적의 보존을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 구성적이고 긴장감 있는 묶임과 자유의 연관성의 토대 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자신의 결정의 모험(Wagnis)을 하는 것을 통해 보다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대리 개념이 전체 인간까지 확장하며⁹⁹⁾ 구체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두 저작에 나타난 모든 윤리적 부분들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9가지의 윤리적 요소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본회퍼에게 윤리적 사고 발전의 성격은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 사이에 일관된 연속성과 연속적인 발전이 함께 나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연속적 발전성은 한프리드 물러가 주장한 “질적인 급격

97) 위의 책, 81.

98) T. Jähnichen, “Freie Verantwortlichkeit und Zivilcourage”, 앞의 책, 105.

99) Hans Friedrich Daub, 앞의 책, 469.

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압로마이트(Hans-Jürgen Abromeit)가 주장한 것처럼 “변화 속에 있는 연속성(Kontinuität im Wandel)”¹⁰⁰⁾을 가리킨다.

V. 본회퍼 윤리의 관심과 역할

1) 지금까지 필자는 본회퍼 윤리의 발전의 논리에 대해 『나를 따르라』로부터 『윤리학』까지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이것을 통해 일관된 연속성과 연속적인 발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이런 두 관점의 공존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가? 왜 그것은 그렇게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은 본회퍼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의 윤리적 관심은 두 권의 저작에서 제기한 그의 질문들을 통해 추적해 볼 수 있는데, 『나를 따르라』 서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노동자, 상인, 농부, 군인들을 위해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¹⁰¹⁾ 그리고 『윤리학』에서는 이렇게 질문한다. “그리스도는 오늘 그리고 여기(heute und hier) 우리 가운데서 어떤 형상을 취하고 있는가?”¹⁰²⁾

100) Hans-Jürgen Abromeit, 앞의 책, 9.

101) DBW 4, 앞의 책, 23(서론); Dieter Kraft, „Kirche als Ereignis. Anmerkungen zur Ekklesiologie Dietrich Bonhoeffers”, in: *Dietrich Bonhoeffer - Gefährdetes Erbe in bedrohter Welt. Beiträge zur Auseinandersetzung um sein Werk*, hg. v. Heinrich Fink/ Carl-Jürgen Kaltenborn/ Dieter Kraft(Berlin: Union, 1987), 91: “『나를 따르라』는 오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파일은 “오늘 그리고 여기”라는 개념을 “세계안에서 있는 하나님 현실성의 표지”로 해석한다. E. Feil, 앞의 책, 104; 또한 이것을 『윤리학』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체적인 책임의 영역”이라고 한다. DBW 6, 앞의 책, 266.

이 두 저작에 나타난 질문을 근거로 그의 윤리적 관심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오늘 그리고 여기”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에게 “결단과 만남의 영역”이다.¹⁰³⁾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에게 교회투쟁 안에서 결단의 영역은 외부적으로는 히틀러의 권력 장악으로 인한 교회의 위협, 국가와 함께 교회의 위협적인 동일화 작업에 직면하는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루터로부터 강조된 칭의의 교리가 후기 루터주의(Postlutheraner)로부터 오용되고 있는 위협 앞에 서는 것이다. 『윤리학』안에서도 결단의 영역은 독일사회주의와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여 독일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윤리적 관심은 직접적으로 그의 삶의 역사와 시대 상황과 긴밀한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심은 『나를 따르라』나 『윤리학』에서 몇 가지 계속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표현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 상대적인 순응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¹⁰⁴⁾ 왜냐하면 그의 윤리적 관심은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에서는 다음을 의미한다. “제자도의 가능성의 영역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분과의 일치 안에서 교회의 동일화(나치화) 뿐만 아니라 후기루터주의가 잘못 사용한 칭의교리의 위협 앞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시기에 교회와 신앙인의 정체성을 세계와 비신앙인의 정체성보다 더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윤리학』에서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과의 일치를 포함한 현실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의

102) DBW 6, 앞의 책, 87(Ethik als Gestaltung).

103) 위의 책, 88.

104) 참조하라. DBW 14, 앞의 책, 484-485.

영역을 교회와 신앙인의 영역을 넘어 확장한다. 이처럼 그의 윤리적 관심은 그리스도로부터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음의 질문이 제기된다. 두 경우에서처럼 본회퍼의 윤리적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면 왜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 하는가? 역사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회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방향성을 줄 것이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언제나 다름 아닌 오늘의 하나님(‘immer’ gerade ‘heute’ Gott)”¹⁰⁵⁾이다. 하나님은 어떤 정해진 형상으로 결정될 수 없고, 하나님은 역사를, 말하자면 현재적 상황을 스스로 취하신다는 것이다.¹⁰⁶⁾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은 매우 깊이 현재적 상황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참인 원리(Prinzipien)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인 계명들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언제나 참인 것이 오늘 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⁷⁾ 또한 그에게 신앙은 언제나 특정한 구체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105) DBW 11, 앞의 책, 332 (세계연합사업의 신학적인 근거를 위해); 이것을 위해 참조하라. Christiane Tietz-Steiding, 앞의 책, 8-21.

106) 달페어트는 “하나님의 특성이 역사의 짧은 형태다”라고 말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각각의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되고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I. U. Dalferth, *Religiöse Rede von Gott*(München: Chr. Kaiser, 1981), 671; 또한 참조하라. Hans-Jürgen Abromeit, 앞의 책, 356: “역사 안에서 얻어지는 그의 인격의 윤곽은 현실성의 구조가 되었다.”

107) DBW 11, 앞의 책, 332; Christiane Tietz-Steiding, 앞의 책, 15-16; 한스 요하킴 크라우스는 본회퍼가 『나를 따르라』에서 “윤리의 모든 규범과 원칙”에 반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를 따르라』는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삶의 프로그램, 목적, 이상이 아니다.” Hans-Joachim Kraus, *Theologische Religionskritik*(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2), 103; 참조하라. DBW 4, 앞의 책, 47; DBW 2, 앞의 책, 81: “이것은 윤리의 의미이다. 즉 비시간적인 진리들이 아니고, 현재적인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의 구체성은 그의 역사성으로부터 근거 지워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역사적인 형태로 우리를 만난다.”¹⁰⁸⁾ 그래서 그의 윤리적 관심은 분명하게 심성의 윤리와 의무론자로서의 칸트 윤리와는 반대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다. ¹⁰⁹⁾

이런 연관 속에서 ‘오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로부터 『윤리학』의 길을 가셨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스스로 가신 길이며, 우리가 그와 함께 가야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보지 않고, 먼저 가지지 않는 길로는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가신 길은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요, 보호된 길이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의 길이다.”¹¹⁰⁾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을 통해 그는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관된 연속성과 연속적인 발전성의 관점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2) 이런 이해 안에서 본회퍼의 신학적, 윤리적 사고에서 윤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이해하는 윤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¹¹¹⁾이다. 교회투쟁 시기에 쓰인 『나를 따르라』에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조치들과 상

108) DBW 6, 앞의 책, 382.

109)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1962, IV 421.

110) DBW 15, 앞의 책, 507(Meditation über Psalm 119).

111) DBW 6, 앞의 책, 372.

황 앞에서, 신학적으로는 값싼 은혜로 인해 교회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독일교회 앞에서 유대인들과 교회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리고 1939년부터 그는 저항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 독일의 운명에 참여하기를 시도한다. 특별히 그에게 “자신의 민족과 땅에 대해 지을 수 없이 느끼는 묶임(매임)으로서의 애국심”¹¹²⁾이 미국에서 다시 독일로 귀국하여 저항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이런 배경 하에서 그는 『윤리학』을 저술하고, 특별히 함께 사는 것을 위해 현실성의 개념과 함께 사는 삶의 개념을 가지고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또한 나치 정권이 발표한 “유전적인 병이 있는 후손들의 방지를 위한 법”이 결국에는 안락사 프로그램으로까지 진행하는데, 1942년까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천 명을 살해하는¹¹³⁾ 상황 앞에서 그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위해 ‘자연적인 것’을 복음으로부터, 그리고 나치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쟁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기를 시도한다. 여기에 그가 생각하고 실천했던 모든 면을 기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두 저작이 저술되는 격동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을 배우며 살아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112) T. Jähnichen, “Freie Verantwortlichkeit und Zivilcourage”, 앞의 책, 94; 참조하라. Christoph Strohm, „Teilnehmen am Schicksal Deutschlands, Patriotismus und abendländisch-christliche Zivilisation bei Dietrich Bonhoeffer“, in: *Welt-Heuristik des Glaubens*, hrsg. v. Karl Homann u Ilona Riedel-Spangenberg(Gü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77), 161.

113) F. Johannsen, „Was heißt Leben schützen?“ In: R. Mokrosch/ F. Johannsen/ C. Gremmels, *Dietrich Bonhoeffers Ethik. Ein Arbeitsbuch für Schule, Gemeinde und Studium*(Guetersloh: Chr.Kaiser, 2003), 66; 그리고 나치가 시행한 안락사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위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LeRoy Walters, „Der Widerstand Paul Braunes und des Bonhoefferkreises gegen „Euthanasie“ - Programm der Nationalsozialisten“, in: *Der Wert menschlichen Lebens. Medizinische Ethik bei Karl Bonhoeffer und Dietrich Bonhoeffer*, 앞의 책, 98-146.

VI.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적인 상황에서 본회퍼 윤리의 의미를 간략하게 언급하며...

1) 본회퍼의 윤리적 사고의 발전은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 안에서 일관된 연속성과 연속적인 발전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함께 공존함’의 이유는 그의 윤리적 관심을 연구함으로써 분명해졌다. 이것은 현재적 상황을 주목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통합적인 연관성 안에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구체화 되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의 윤리적 관심은 확고한 추상적인 원리나 단순한 상황분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재적 상황과 깊게 연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사실이다.¹¹⁴⁾ 이런 두 가지 연관성은 교회투쟁시기와 공모 (Konspiration) 시기에 그가 전체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함께 사는 법 (mit-leben zu lernen)¹¹⁵⁾을 실천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저항과 복종”안에서도 다음의 질문을 다시 제기하며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는 실제로 누구인가?”¹¹⁶⁾

2) 한국에서 본회퍼의 윤리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대부분 민중신학이나 평화윤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이 한국적인 신학과 윤리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평화윤리는 분단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신학적인 물음임에 틀

114) Christiane Tietz-Steiding, 앞의 책, 18; 참조하라. DBW 8, 앞의 책, 541.

115) DBW 6, 앞의 책, 372.

116) DBW 8, 앞의 책, 402.

림없다. 더 넓게는 동북아시아의 상황과 전세계적 상황 속에서도 본회퍼의 평화윤리는 아직도 중요한 신학적인 아젠다이다.¹¹⁷⁾

3) 그러나 이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적인 현재 상황을 주목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통합적인 연관성 속에서 함께 살펴본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다르게 질문해 본다면 ‘오늘 그리고 여기,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본회퍼가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에서 강조하였던 부분들이 모두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 한국적 상황이 『나를 따르라』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배경과는 다르지만, 신학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값싼 은혜가 판을 치고, 교회의 세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나치 제국 앞에서 가장 무력하게 있었던 독일교회처럼 한국교회도 어느때보다 무력한 상태에 있다. 그렇기에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취할까? 라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진지하게 걸어가는 값비싼 제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값비싼 제자도는 구체적으로 신앙과 복종(순종), 칭의와 제자도,

117)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라. 유석성,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독교의 책임: 본회퍼의 평화사상, 『기독교 사상』, 50(2006), 84-93; 유석성, “본회퍼의 평화윤리”, 『해석학과 윤리』, 3(1999), 33-58; 본회퍼의 평화사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음의 책을 참고, Reinhold Mokrosch, “Was heist ‘Frieden stiften’?”, in: R. Mokrosch/ F. Johannsen/ C. Gremmels, *Dietrich Bonhoeffers Ethik. Ein Arbeitsbuch für Schule, Gemeinde und Studium*(Guetersloh: Chr.Kaiser, 2003), 108-181.

그리고 은혜와 행동(삶)의 밀접한 통일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윤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룬 ‘책임’이라는 사상을 다시 한국교회가 붙잡아야 한다. 그동안 그의 윤리이해에 중요한 개념인 ‘책임의 윤리’가 한국 신학자들에 의해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가 ‘책임’ 사상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을 고민해야 한다. ‘본회퍼의 책임’은 오늘 여기서 모습을 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것이다. 책임은 묶임(매임)과 자유의 구조인데, 묶임은 대리와 현실적합성으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삶을 수용하고 또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결단해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책임의 내용은 사랑이고, 형태는 자유이다.¹¹⁸⁾

이런 책임(책임의 윤리)을 한 마디로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책임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말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나 민중을 위해 알량한 동정심을 베푸는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교회의 본질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형상을 통해 구체화한 ‘책임’의 사상을 통해 배워야 한다. 이것은 그가 1944년 8월에 감옥에서 작성한 “작업의 계획”에서 말한 것과도 동일하다. 앞으로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거기에 있을 때만 교회이다.”¹¹⁹⁾

본회퍼의 순교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과 행동의 통일성을 통한 제자도의 회복¹²⁰⁾과 타자를 위한 삶의 책임은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모습일 것이다.

118) DBW 6, 앞의 책, 231.

119) DBW 8, 앞의 책, 560-561.

120) DBW 14, 앞의 책, 578. “사람들이 교회의 말과 행동 사이에 나타난 불일치로 인해 충격을 받을 때, 사랑의 침묵적인 섬김이 가장 좋은 목회”이다.

참고문헌

- 갓시, 존 D.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고재길, 본회퍼, 『한국교회에 말하다』(서울: 케노시스, 2012)
- 드람, 자비네. 『본회퍼를 만나다』, 김홍진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베트게, 에베하르트,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옮김(서울: 복 있는 사람, 2014)
- 박봉량, 『기독교의 비종교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메텍시스, 에릭.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옮김(서울: 포이에마, 2011)
- 이형기, 『본회퍼의 신학사상』(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1).
- 유석성, “본회퍼의 평화윤리”, 『해석학과 윤리』, 3(1999)
- _____,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독교의 책임:본회퍼의 평화사상”, 『기독교 사상』, 50(2006)
- 본회퍼, 디트리히. 『성도의 교제』, 유석성, 이신건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본회퍼, 디트리히. 『나를 따르라』, 손규태, 이신건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본회퍼, 디트리히. 『윤리학』, 손규태, 이신건, 오성현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Dietrich Bonhoeffer, Dietrich Bonhoeffer Werke, hg. v. E. Bethge, E. Feil, Chr. Gremmels, W. Huber, H. Pfeifer, A. Schönherr, H. E. Tödt, I. Tödt, München 1986-1991(Gütersloh, 1992-1999). *DBW*로 약칭.
- DBW 1: Sanctorum Communio
- DBW 2: Akt und Sein. Transzendentalphilosophie und Ontologie in der systematischen Theologie (1931)
- DBW 4: Nachfolge
- DBW 6: Ethik

DBW 8: Widerstand und Ergebung. Briefe und Aufzeichnungen aus der Haft

DBW 10: Barcelona, Berlin, Amerika 1928-1931

DBW 11: Ökumene, Universität, Pfarramt 1931-1932

DBW 12: Berlin 1932-1933

DBW 13: London 1933-1935

DBW 14: Illegale Theologenausbildung: Finkenwalde 1935-1937

DBW 15: Illegale Theologenausbildung: Sammelvikariate 1937-1940

DBW 16: Konspiration und Haft 1940- 1945

Abromeit, H.-J. *Das Geheimnis Christi. Dietrich Bonhoeffers erfahrungsbezogene Christologie*(Neukirchener Beiträge zur systematischen Theologie 8)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An Il, Kang. *Von der "Nachfolge" zur "Ethik" der Verantwortung. Die Bedeutung der ethischen Konzeptionen Dietrich Bonhoeffers für die Theologie und Kirche in Südkorea*(Münster: Lit verlag, 2014)

Barth, Friederike. *Die Wirklichkeit des Guten. Dietrich Bonhoeffers "Ethik" und ihr philosophischer Hintergrund* (Tübingen: Mohr Siebeck, 2011)

Bethge, Eberhard. "Dietrich Bonhoeffer und Juden", in: Feil Ernst/Tödt Ilse(Hg.) *Konsequenzen. Dietrich Bonhoeffers Kirchenverständnis heut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0), *Dietrich Bonhoeffer*(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5)

Bethge, Renate. *Dietrich Bonhoeffer*(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4)

Brakelmann, G. „Dietrich Bonhoeffers Tätigkeit in der Konspiration 1939-1945“, in: *Dietrich Bonhoeffer-Stationen und Motiv auf dem Weg in den politischen Widerstand*, hg. v. Günter Brakelmann, u. a.(Münster: Lit Verlag, 2005)

Daub, Hans Friedrich. *Die Stellvertretung Jesu Christi. Ein Aspekt des Gott-Mensch-Verhältnisses bei Dietrich Bonhoeffer*(Berlin: Lit Verlag, 2006)

Dalferth, U.I. *Religiöse Rede von Gott*(München, 1981)

Dinger, J. *Auslegung. Aktualisierung und Vereinnahmung. Das Spektrum der deutschsprachigen Bonhoeffer-Interpretation in den 50er Jahren*(Neukirchen-

- Vluyn: Neukirchener,1998)
- Feil, Ernst. Die Theologie Dietrich Bonhoeffers, 2.Auflage.(München: Chr. Kaiser, 1971)
- Godsey, John D. *The Theology of Dietrich Bonhoeffer*(Philadelphia, 1960)
- Gosada, P. *Du sollst keine anderen Götter haben neben mir. Gott und die Götzen in den Schriften Dietrich Bonhoeffer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 Gremmels, Christian / Pfeifer, Hans. *Theologie und Biographie. Zum Beispiel Dietrich Bonhoeffer*(München: Chr.Kaiser, 1983)
- Honecker, M. "Christologie und Ethik. Zur Dietrich Bonhoeffers Ethik", hg. v. Manfred Oemig u. Axel Graupner, *Altes Testament und christliche Verkündigung*(Stuttgart u. a.: Kohlhammer, 1987)
- Huber, W. Dietrich Bonhoeffer - ein evangelischer Heiliger, in: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EKD) im Internet*, 2006
- Jähnichen, Traugott. "Freie Verantwortlichkeit und Zivilcourage", in: *Dietrich Bonhoeffer-Stationen und Motiv auf dem Weg in den politischen Widerstand*, hg. v. Günter Brakelmann, u.a.(Münster: Lit Verlag, 2005)
- _____, *Werte-Nomen-Gewissen. Was bestimmt unser Leben?* (Bad Oeynhausen, 2001)
- Johannsen, Friedrich. "Verantwortliches Handeln in konkreter Zeit. Zu Bonhoeffers Ethikentwurf", in: Ulrich Becker(Hg.), *Dietrich Bonhoeffer als Provokation für heute*(Hannover, 1986)
- _____, „Was heißt Leben schützen?“ In: R. Mokrosch/ F. Johannsen/ C. Gremmels, *Dietrich Bonhoeffers Ethik. Ein Arbeitsbuch für Schule, Gemeinde und Studium*(Guetersloh: Chr.Kaiser, 2003)
-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1962
- Klappert, Bertold. „Weg und Wende Dietrich Bonhoeffers in der Israelfrage“, in: *Ethik im Ernstfall: Dietrich Bonhoeffers Stellung zu d. Juden u. ihre Aktualität*, hg. v. W. Huber u. Ilse Tödt(München: Chr. Kaiser, 1982)(IBF 4)
- Klein, Michael. "Märtyrer im vollen Sinne Wortes. Das Bild Dietrich Bonhoeffers im frühen Gedenken der kirchlichen und politischen

- Öffentlichkeit”, in: EvTh. 67. Jg., Heft 6, 432; Christof Vetter, “Märtyrer des 20. Jahrhunderts”, in: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EKD) im Internet*, 2006
- Kraft, Dieter. „Kirche als Ereignis. Anmerkungen zur Ekklesiologie Dietrich Bonhoeffers”, in: *Dietrich Bonhoeffer - Gefährdetes Erbe in bedrohter Welt. Beiträge zur Auseinandersetzung um sein Werk*, hg. v. Heinrich Fink/ Carl-Jürgen Kaltenborn/ Dieter Kraft(Berlin: Union, 1987)
- Kraus, Hans-Joachim, *Theologische Religionskritik*(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2)
- Mayer, Rainer. Was wollte Dietrich Bonhoeffer in Fanö?, (Theologische Beiträge 19,1988)
- Mokrosch, Reinhold. “Das Gewissensverständnis Dietrich Bonhoeffers“, in: *Bonhoeffer und Luther. Zur Sozialgestalt des Luthertums in der Moderne*(München: Chr.Kaiser, 1983)
- _____, “Was heist ‘Frieden stiften’?”, in: R. Mokrosch/ F. Johannsen/ C. Gremmels, *Dietrich Bonhoeffers Ethik. Ein Arbeitsbuch für Schule, Gemeinde und Studium*(Guetersloh: Chr.Kaiser, 2003)
- Möser, Peter. *Gewissenspraxis und Gewissenstheorie bei Dietrich Bonhoeffer* (Heidelberg, 1983)
- Moltmann, J. *Herrschaft Christi und soziale Wirklichkeit nach Dietrich Bonhoeffer*(München Chr.Kaiser, 1959)
- Müller, C. R. *Dietrich Bonhoeffers Kampf gegen die nationalsozialistische Verfolgung und Vernichtung der Juden. Bonhoeffers Haltung zur Judenfrage im Vergleich mit Stellungnahme aus der evangelischen Kirche und kreisen des deutschen Widerstandes* (Heidelberger Untersuchungen zu Widerstand, Judenverfolgung und Kirchenkampf im Dritten Reich 5) (München: Chr. Kaiser Verlag , 1990)
- Müller, G.L. *Für Andere Da. Christus-Kirche-Gott in Bonhoeffers Sicht der mündig gewordenen Welt*(Paderborn, 1980)
- Müller, H. *Von der Kirche zur Welt. Ein Beitrag zu der Beziehung des Wortes Gottes auf die societas in Dietrich Bonhoeffers theologischer Entwicklung* (Leipzig, 1966)

- Neugebauer, Matthias. "Die theologische Lebensbegriff Dietrich Bonhoeffers",
in: *Der Wert menschlichen Lebens. Medizinische Ethik bei Karl Bonhoeffer
und Dietrich Bonhoeffer* (Berlin: Wichern, 2006)
- Pangritz, A. *Dietrich Bonhoeffers Forderung einer Arkandisziplin- eine un-
erledigte Anfrage an Kirche und Theologie* (Pahl- Rugenstein-
Hochschulschriften Gesellschafts- und Naturwissenschaften 259) (Köln:
Pahl- Rugenstein, 1988)
- Peters, T. R. *Die Präsenz des Politischen in der Theologie Dietrich
Bonhoeffers. Eine historische Untersuchung in systematischer Absicht*
(Systematische Beiträge 18)(München: Chr.Kaiser, 1976)
- Prüller-Jagenteufel, Gunter M. *Befreit zur Verantwortung. Sünde und Versöhnung
in der Ethik Dietrich Bonhoeffers*(Münster: Lit Verlag, 2004)
- Schlegel, Thomas. „Gesetz und Evangelium“ - „Evangelium und Gesetz“? Das
discrimen legis et evangeli als Leitgedanke in Dietrich Bonhoeffers
„Nachfolge“, in: Ders./ A. Schwarze, *Der Kampf um die teure Gnade.
Studien zu Dietrich Bonhoeffer*(Osnabrück: Der Andere Verlag, 2002)
- Schlingensiepen, Ferdinand. *Dietrich Bonhoeffer 1906-1945. Eine Biographie*
(München: C.H.Beck, 2005)
- Tietz-Steiding, C. "Gott ist uns immer gerade heute Gott", in: *Bonhoeffer-
Rundbrief*(Nr. 70/2003)
- Schmitz, Florian. *Nachfolge. Zur Theologie Dietrich Bonhoeffers*(Goettingen:
Vandehoek&Ruprecht, 2013)
- Schödl, A. *Unsere Augen sehen nach dir. Dietrich Bonhoeffer im Kontext einer
aszetischen Theologie*(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6)
- Strohm, Christoph, *Theologische Ethik im Kampf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Der Weg Dietrich Bonhoeffers mit den Juristen Hans von Dohnanyi und
Gehard Leibholz in den Widerstand*(München: Chr. Kaiser, 1989)
- Strunk, Reiner. *Nachfolge Christi: Erinnerungen an einer evangelischen
Provokation*(München: Chr. Kaiser, 1981)
- Christoph Strohm, „Teilnehmen am Schicksal Deutschlands. Patriotismus und
abendländisch-christliche Zivilisation bei Dietrich Bonhoeffer“, in:
Welt-Heuristik des Glaubens, hrsg. v. Karl Homann u Ilona Riedel-

Spangenberg(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1977)

Tietz, Christiane. "Nur der Glaubende ist gehorsam, und nur der Gehorsame glaubt. Beobachtungen zu einem existentiellen Zirkel in Dietrich Bonhoeffers Nachfolg", in: *Dietrich Bonhoeffer Jahrbuch 2* 2005/2006 hg. v. Victoria J. Barnett, u.a., 2006

Tödt, H.E. "Judendiskriminierung 1933-Ernstfall für Bonhoeffers Ethik", in: Eberhard Bethge, Christian Gremmels, u.a., *Ethik im Ernstfall. Dietrich Bonhoeffers Stellung zu den Juden und ihre Aktualität*, (München: Chr. Kaiser, 1982) (Internationales Bonhoeffer Forum 4)

H.E Tödt, *Theologische Perspektiven nach Dietrich Bonhoeffer*(München: Chr. Kaiser, 1988)

Walters, LeRoy. „Der Widerstand Paul Braunes und des Bonhoefferkreises gegen „Euthanasie“ - Programm der Nationalsozialisten“, in: *Der Wert menschlichen Lebens. Medizinische Ethik bei Karl Bonhoeffer und Dietrich Bonhoeffer*(Berlin: Wichern, 2006)

Weinrich, Michael. *Christliche Religion in einer „mündig gewordenen Welt. Theologische Überlegungen zu einer Anfrage Dietrich Bonhoeffers in weiterführender Absicht*(Religionspädagogik heute Band 11)(Aachen,1982)

Weissbach, Jürgen. *Christologie und Ethik bei Dietrich Bonhoeffer* (München: Chr. Kaiser,1966)

Zimmerling, Peter. *Bonhoeffer als Praktischer Theologie*(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6)

논문투고일: 2015. 06. 05.

심사개시일: 2015. 07. 13.

게재확정일: 2015. 08. 07.

• 국 문 초 록 •

본고는 본회퍼의 윤리적 사고의 발전의 성격을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으로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본회퍼의 다른 저작들보다 윤리적 사고가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회퍼의 윤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상기 두 저작의 정확한 읽기를 시도하였다.

우선, 두 저작을 자세하게 살피기 전에 본회퍼의 윤리적 사고의 발전적 성격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두 저작의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그 다음,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에서 논의된 9개의 윤리적 주제를 중심으로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본회퍼에게 윤리적 사고 발전의 성격은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사이에 일관된 연속성과 연속적인 발전이 함께 나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의 역사적인 배경과 윤리적 요소들을 비교하는 동안 드러난 본회퍼에게 있어서 윤리적 관심과 윤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이것을 통해 본회퍼의 윤리적 관심은 현재적 상황을 주목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계시된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통합적인 연관성 안에서 구체화하고 있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의 윤리적 관심은 확고한 추상적인 원리나 단순한 상황분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재적 상황과 깊게 연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이다. 이런 두 가지 연관성은 교회투쟁시기와 공모(Konspiration)시기에 본회퍼가 전체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함께 사는 법(mit-leben zu lernen)을 실천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본회퍼의 윤리적 사고가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본회퍼 윤리적 사고는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디트리히 본회퍼, 『나를 따르라』, 『윤리학』, 윤리적 사고 발전, 윤리의 관심과 역할, 오늘의 하나님, 함께 사는 법, 한국교회
